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그리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유부남을 사귀는 처녀분들이 꽤 되더군요. 살다보면 재수 없게 유부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유부남과의 만남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헤어질 수 없는 그 심정도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지요. 유부남을 사귀는거 비난하거나 헤어지라는 글이 아닙니다. 유부남의 부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 대비한 몇가지 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나이 마흔에 26살짜리 남편의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 아가씨, 제 친구를 켜려보며 표독스럽게 말하더군요. "나도 그동안 힘들었던 말이에요. 아줌마는 같이 살잖아요. 나는 가끔 만나는 건데 그것도 안돼요?" 헬.집에 들어온 도둑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나도 몰래 들어오느라 힘들었던 말이에요. 가끔 가서 잠만 자는 것도 안된다는 거예요?" 되려 따지는 꼴이지요.

이런 딸벌어진 아가씨랑 무슨 대화를 하며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남편의 수준이 액면가로 보이더군요. 혹시 애인되시는 유부남의 부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정신연령을 의심해하는 이야기는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인인 그 유부남까지 몰락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친구는 24살짜리 아가씨에게 더 기함할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언제 다 늙었잖아요. 내가 더 젊고 이쁘잖아요. 아줌마가 이혼해요. 오빠랑 나는 서로 사랑해요." 제 친구 사례 들었습니다. "아가씨, 주인보다 더 젊고 이쁘면



남의 아파트 가져도 되는거예요? 아파트를 갖고 싶으면 적당한 가격을 치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요." 이 경우는 제 친구들 다 노코멘트했습니다. 그 남편, 아내에게 무릎꿇고 짹짹 빌면서 이 아가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거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내가 못알아들을까 걱정되었는지 미친너라는 표현도 같이 썼습니다. 혹시

유부남 사귀는 처녀, 10가지 이유 준비하라

유부남의 부인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유부남 애인인 그에게까지 미친너 소리 듣고 억장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진짜냐구요? 바람피운 남자들, 아내에게 걸리면 대부분 이런 대사 합니다. 설마 바람피우는

정하게 대학 나왔고 젊은 시절 찬란하게 보냈고, 한 지성, 한 말발 하는 친구들입니다. 논리로 따지고 교양으로 따져도 어디까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제 친구들, 남편 바람피울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어린 아가씨일 수도 있다는거, 다 이해합니다.

거기까지 다 괜찮은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그 상대 아가씨들의 딸벌어집니다. 부도덕은 용서가 되지만 무지와 비논리는 용서안돼

부도덕은 용서가 되지만 무지와 비논리는 용서안돼. 턱도 없는 사랑타령 그만 과학적·논리적 근거 내놔야. 유부남과 만나고 계시는 처녀분들, 언젠가는 그 부인을 만날 날이 올겁니다. 턱도 없는 그 사랑타령 빼고 그 남자와 왜 만나야하는지 과학적인 근거 10가지와 논리적인 근거 10가지 정도의 주장은 좀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 될거 아닙니까. 진부하게 머러채잡고 물개 없는 것 같은 고정된 행동은 지양하고 싶으니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에게 신의같은 우아한 물건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바람 그 자체가 거짓말로 시작해서 전 과정이 거짓 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끝이 진실과 참으로 끝날거라 기대하면 본인만 두 번 죽는 길입니다. 유부남의 부인인 제 친구들, 집에서 애나 키우는 무지렁이들 아닙니다. 다들 귀하게 자랐고 멀

감기쯤일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위압 관성이 나왔다는 것. 이재훈씨가 국회부의장 이용희 의원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희도 한 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인산역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토막 사체 용의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32년만의 무죄 선고, 국내 첫 담배 소송 등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남인 제프 장(26)씨로 알려지면서 제프 장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병원장으로 출연하는 이순재(72)씨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엄한 아버지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이씨가 이번에는 사정없이 망가졌다. 최근 물레 '야한 동영상'을 보다 가족에게 들키는 장면은 네티즌들이 동영상으로 퍼나르면서 인기를 끌었다. 견견 밸런스 이재훈(46)씨가 위압 관정을 받아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네티즌들의 클릭세례를 받았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연예인들의 결혼과 이별은 네티즌들에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연예인 누가 사귀거나 헤어졌다는 소식이 인터넷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프로야구 LG트윈스 출신 서용빈(36)과 탤런트 유혜정(36)이 결혼 8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합의했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스포츠스타와 연예인의 결혼으로 화제

'핑클' 옥주현 남자친구 누구야? 인터넷 와글

를 모았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연인'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톱스타 이서진(34)과 김정은(33)의 교제설도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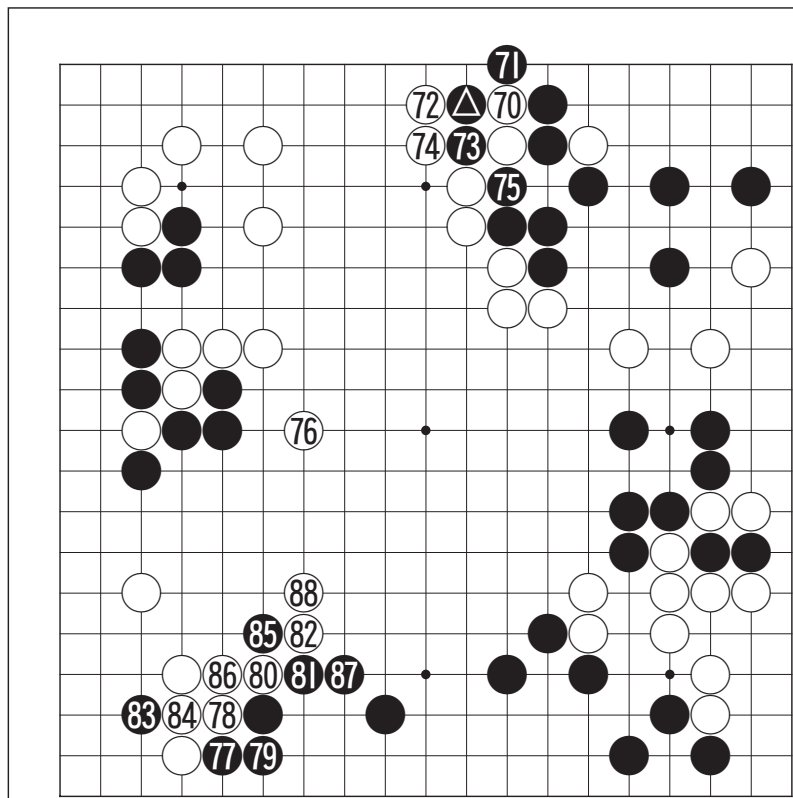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한 스포츠신문 보도가 나온 뒤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를 무더기 클릭하면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핑클'출신 가수 옥주현(26)도 클릭 세례를 받았다. 옥주현이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가 서울본사의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장재구 회장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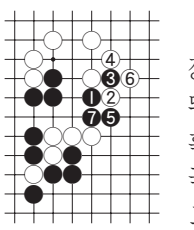
를 모았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연인'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톱스타 이서진(34)과 김정은(33)의 교제설도 눈길을 끌었다.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한 스포츠신문 보도가 나온 뒤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를 무더기 클릭하면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핑클'출신 가수 옥주현(26)도 클릭 세례를 받았다. 옥주현이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가 서울본사의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장재구 회장의 차



제3회 광주시 교육감배 어린이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 성공한 극약 처방 6보(70~88). 백 박은찬 <수문초5>, 흑 강지수 <주월초6>



좌편이 깨끗이 정리되고 흑으로 뛰어 들어가는 흑이 승기를 잡은 국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다. 박은찬군이 70으로 찌르고 72로 틀어막은 것은 극약 처방이다. 상변에 집을 만들지 못하면 집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갈이 최강의 수단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강지수군이 미끼를 던씩

물었다. 즉각 흑 73,75로 두점을 잡은 수가 성급한 수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붙여 볼 찬성였다. 백은 2로 짓히는 정도인데 7까지 되면 흑의 성공이다. 백 76이 요소로 이곳을 차지해서는 백이 많이 따라붙는 형국이다. 흑 77로 붙이고 백 88까지의 상용 수단, 83으로 먼저 들여다 보고 85로 끊어둔것은 빈틈없는 수순이다. 이 수순들은 모두 귀의 뒷맛과 관계가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보를 보자.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주간 급상승 검색어

Table with 2 columns: Rank, Search Term. 1. 인산역 토막사건, 2. 유혜정 파경, 3. 여명 탈방, 4.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5. 이순재, 6. 옥주현 남자친구, 7. 김금조치 판사, 8. 일기예보, 9. 담배 소송, 10. 양파 판매.

바둑소식

이세돌, 14개월 만에 1위 탈환

이세돌 9단이 1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2007년 2월 프로기사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2만466점을 획득, 정상에 올랐다. 그 동안 1위 이창호 9단과의 차이를 좁혔던 이세돌은 지난 1월 제3회 도요타텐소배 세계왕좌전에서 우승해 이창호를 제치고 14개월 만에 1위 탈환에 성공했다. 반면 2005년 11월과 12월 단 두 달간만 1위 자리를 이세돌에게 내주었을 뿐 부동의 1위를 기록해 온 이창호 9단은 1월 삼성화재배 우승 실패와 국수전 도전기에서의 부진 등으로 1위 수성에 실패했다. 이 9단의 랭킹 점수는 2만 179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9.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이 선수가 한국선수로 네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가 됐다. 이 선수는 최근 소속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미들즈브러가 이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축구종가' 잉글랜드에서 제 2의 축구 인생을 꾸리게 됐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토트넘)·설기현(레딩)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네 번째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종국 ② 박주영 ③ 이천수 ④ 조재진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Fortune (e.g., 36년생 도기에 발동 찍힐 수니 근간을 주의하라, 48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oplast) with contact information: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833> 오하이오 니혼고 <833> 니하오 쥬구워 <24> 한자 이야기 <451>

Did you hear about ~? ~에 대해 들어보았나? A: Did you hear about the new bookstore? B: The one with the coffee shop in it? A: Yes. It is the neatest place. B: Oh, Do you? I'd like to.

遊んではいられませんね. 놀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A: 今年の春の卒業生(そつきょうせい)就職況は、かなり賑(きび)しいようですね. B: 何か特別な特徴(とくちょう)とか個性(こせい)がないとね.

我一定學点儿來. 내가 꼭 일찍 갈게. A: 小英, 我是于慧, 好久不见, 你好吗? B: 马马虎虎, 你呢? A: 我最近搬家了, 您请坐, 请喝茶.

喪家之狗 (상가지구). 죽을 상, 집 가, 어조사 지, 개 구. 상가지구(喪家之狗)는 '상가지 개'라는 말이다. 주인이 없어진 개처럼,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의 사람을 비유한다.